

사명으로 이어온 27년, 새로 걸음을 내딛는 군무원들에게

국방혁신 4.0 추진에 따라 군무원 정원이 지속 확대되면서 군 조직 내 군무원의 역할과 책임 또한 강화되고 있다. 군무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주도성을 발휘하며 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3 회계연도 결산 국방위원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임용 후 3년 이내 퇴직자가 2019년 18.9%에서 2023년 49.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무원 제도의 외형적 확대에도 근무여건과 조직문화 개선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육군종합군수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던 2022~2024년에도 이러한 변화를 체험했다. 당시 군무원 초급반 교육생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면서 교육 인원이 많아지는 순환구조였다. 군무원 후배들의 조기퇴직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주거 미지원이나 수당 같은 복지제도와 근무환경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조



최 병 춘 군무사무원
육군2작전사령부 군수처

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싶다.

올해로 근무 27년을 맞았다. 1997년 외환위기와 2차 오일쇼크라는 시련 속에서 군무원을 준비했던 시절이 선명히 떠오른다. ‘임용되면 반드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각오로 준비했고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1998년 공채 9급 임용 후 탄약대대 탄약보급소(ASP) 말단 제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탄약직렬 군무원은 현장근무가 많았다. 탄약검사, 정비, 보급, 처리 등 다양한 분야를 순환하며 근무했고 광활한 탄약고 지역에서 추위와 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할 때도 적지 않았다. 훈련 때는 여성 군무원으로서 야외와 장실 이용 등 불편함을 겪을 때도 있었

다. 부대 이동을 준비할 때는 각종 서류와 물품의 적재·하역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배움의 시간이었다. 부족한 급여 속에서도 계획적으로 생활하며 매일 규정을 탐독하고 업무를 익히는 데 집중했다. 동료들 중에는 힘든 여건으로 인해 이직을 택한 이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견디며 ‘사명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27년이 흐른 지금 군무원 조직은 새로운 세대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MZ세대 군무원들은 일과 삶의 균형, 수평적 소통, 공정한 보상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군 조직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군무원은 군의 일원으로서 군인과 함께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한다. 첨단 국방력의 토대에는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의 헌신이 있다. 앞으로도 군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복지 확대, 소통문화 정착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바다에서 복지관으로 나눔의 향해는 계속된다



이 정 철 원사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해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218대대 장병들은 작전과 훈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향한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천 중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사명을 마주했다.

처음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은 따뜻한 환대였다. 복지사님과 어르신들의 “어서 와요”라는 밝은 인사는 나를 포함해 동행한 장병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 줬다. 그곳은 따뜻한 미소와 눈빛이 오가는 현장이었다. 그분들의 따뜻한 시선에 보답하고자 식사 배식 보조부터 이발 재능기부, 실내환경 정리, 제조작업,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생활용품 가정방문 지원 및 말벗 돼 드리기까지 겹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을 향한 진심을 꼭 눌러 담았다.

이런 진심이 통한 듯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계신 어르신께서 손을 꼭 잡아 주시며 “해군이 찾아와 주니 마음이 즐겁고 든든해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주

다가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 주고 사람이 진심으로 통하는 경험이 더 좋은 군인으로 변화시키는 듯

름지고 따뜻했던 손의 촉감에서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작지만 소중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복지관에서 ‘공감’과 ‘배려’가 전부였다. 다가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꼭 잡아 줬다.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통하는 그 순간의 경험이 나를 더 좋은 군인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런 변화는 봉사활동을 함께한 장병 모두가 체험하는 듯했다. “자주 오고 싶다” “이런 시간이 정말 필요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걸 보니 말이다. 장병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국민 곁에서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국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면서 국민과 직접 만나 마음을 나누고 힘이 돼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다.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 가면서 내 맘과 노력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 그 보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도 군무원으로서 바다를 굳건히 수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마음을 지키는 봉사의 향해를 계속할 것이다. 바다에서 복지관으로, 국방에서 국민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나눔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공간력의 힘, 해안경비대대 통합으로 실현하다

육군23경비여단 청룡대대의 공간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감시-결심-기동-타격’의 원스톱 해안경계작전이 가능한 ‘통합형 해안경비대대’로 거듭나고자 대대 주둔지와 4개 소초의 모든 공간을 재구성 중이다. 지난 10월 나 역시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해 변화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출발을 맞고 있다.

해안소초에서 장병으로 복무할 때가 가장 큰 어려움은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었다. 교대로 근무하는 인원이 생활관, 화장실, 식당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 서로의 생활리듬이 맞지 않아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 또한 작전 수행 시에는 소초 상황실과 대대 지휘통제실 간 물리적 거리로 인해 소통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공간의 제약’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작전 효율과 단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 그래서 ‘공간이 변하면 부대가 변한다’는 마음으로 변화의 수혜자에서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그 과정은 짧지만 같이하고 싶어 임기제 부사관



안 영 호 하사
육군23경비여단

의 길을 선택했다.

최근 육군참모총장님께서 “공간력은 부대 구성원을 단결하게 하는 공간의 힘”이라며 ‘공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과 우리 부대의 변화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기존에 소초별로 운용하던 열영상감시장비(TOD)와 과학화 감시장비, 레이더 장비를 대대로 통합해 ‘감시상황실’ ‘레이더상황실’ ‘지휘통제실’이 함께 있는 ‘통합상황실’로 구성 중이다. 이제 우리는 한 공간에서 같이 보고 결심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기존 내륙에서 중대별로 운영하던 여러 개의 행정반을 ‘내륙중대 통합행정반’으로 공간을 합치고 있다. 이

에 한 공간에서 중대별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소초 인원 대부분이 대대로 통합돼 생활해야 하는 병력이 많아짐에 따라 간부 연구실, 중대장실 등 11곳의 사무실을 생활관 공간으로 전환 중이다. 그러면 모두가 한 건물에서 생활하며 단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뭉치고 있다. 주둔지 정비를 묵묵히 수행하는 용사들, 공간 확보를 위해 선뜻 컨테이너 사무실로 이동한 간부들, 현장을 점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여단장님을 비롯한 여단 참모부 간부들까지 청룡대대의 공간력은 ‘하나된 힘’으로 ‘가득 차게’ 발휘되고 있다.

청룡대대는 ‘공간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출발선에서 있다. “공간이 바뀌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질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마음으로 새출발을 하는 청룡대대와 우리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동해안 최전선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분량: 1600자 이내 (공백 포함)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일보 홈페이지 내 ‘병영의 창 기고하기’ 배너 통해 양식 확인 후 이메일로 제출(현역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사전검토 필수). 증명사진(최소 1MB 크기)과 함께 채택 시 기프티콘 수령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포함. 글의 분량이 최대 1600자를 넘지 않도록 유의.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mletter@mnd.mil
 기타: ‘병영의 창’ 등에 글이 게재된 분에게는 응모한 휴대전화 기반 카카오톡으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가입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 및 기프티콘 분실 시 재발송 불가합니다.
 문의: (군)947-3713, (일반)02-2079-3713